

식 순

1. 개 식
 1. 청 수 봉 전
 1. 분 향 집례
 1. 심 고 성령출세설
 1. 주문3회병송
 1. 경 전 봉 독 대신사 환원기도가
 1. 위령문낭독
 1. 천덕송합창 위령송
 1. 추 념 사
 1. 천덕송합창
 1. 분 향 참례인
 1. 심 고
 1. 폐 식
-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 대신사 약력

- 포덕전 36년(1824) 10월 28일 경주 월성군 현곡면 가정리에서
부친 경주 최 씨 옥과 모친 한 씨 사이에서 탄생하시다.
처음 이름은 제선(濟宣) 자는 도언(道彦)이시다.
- 포덕전 29년(1831) 모친 환원하시다.
- 포덕전 20년(1840) 부친 근암공 환원하시다.
- 포덕전 18년(1842) 울산의 밀양 박씨와 혼인하시다.
- 포덕전 17년(1843) 집이 불타 용담정으로 이사하시다.
- 포덕전 16년(1844) 주유천하에 나서시다.
- 포덕전 6년(1854) 주유천하를 마치고 울산 호암동(일명 여시바윗골)에
초가삼간을 짓고 구도의 수행에 들어가시다.
- 포덕전 5년(1855) 3월에 호암동에서 을묘천서를 받으시다.
- 포덕전 4년(1856) 양산 천성산 내원암에서 수행하시다가
숙부의 환원을 직관하시고 47일 만에 하산하시다.
- 포덕전 3년(1857) 천성산 적멸굴에서 다시 49일간의 기도를 마치시다.
- 포덕전 1년(1859) 10월에 경영하던 철점이 파산되어
집과 땅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용담으로 돌아오시다.
2월에 입춘시를 지으시며 구도의 결의를 다지시다.
- 포덕 1년(1860) 이름 제선을 제우(濟愚)로, 자 도언을 성묵(性默)으로,
호를 수운(水雲)으로 고치시다.
4월 5일 용담에서 한울님으로부터 무극대도를 받으시다.
5월 용담가를 지으시다.
- 포덕 2년(1861) 6월부터 포덕을 시작하자
어진 선비들과 민중들이 구름처럼 모여들다.
7월에 포덕문, 8월에 안심가를 지으시다.
11월에 유생들이 서학으로 몰아 관으로부터 탄압이 있자

- 포덕 3년(1862) 제자 최중희를 데리고 남정길에 오르시다.
- 12월 호남지방 남원 교룡산성 隱跡庵에 은거하시다.
- 1월 권학과와 논학문을
- 6월 수덕문과 몽중노소문답가를 지으시다.
- 7월 경주부 청송으로 돌아와 박대여의 집에 머무시다.
- 9월 많은 제자가 출입하자 경주영장은 대신사를 체포,
이 소식을 들은 도인 5~6백 명이 모여 영장에게
항의하자 5일만에 석방하다.
- 10월 14일 처신을 신중히 하라는 통문을 띄우시다.
- 11월 9일 흥해 매곡동 손봉조의 집으로 옮기시다.
- 12월 26일 연원의 효시가 되는 접주(接主)를
최초로 임명하시다.
- 포덕 4년(1863) 3월 9일 용담정으로 돌아와 필법을 지으시다.
- 4월 좌잡을 지어 강수에게 주시다.
- 6월 개접(開接)하여 많은 도인에 가르침을 베푸시다.
- 7월 23일 파접(罷接)하시다.
이날 최경상에게 해월(海月)의 도호를 지어주시고
북도중주인(北道中主人)으로 임명하시다.
하순에 도덕가를 지으시다.
- 8월 초순 흥비가를 지으시다.
- 8월 14일 최해월에게 도통(道統)을 전수하시다.
- 11월 불연기연을 지으시다.
- 12월 10일 조정에서 파견한 선전관 정운구에게 붙잡히시다.
대신사와 이내겸은 서울로 압송되고
나머지 30명은 경주옥에 하옥되다.
- 12월 20일 과천에 당도했다가 철종의 국상(國喪)을 당하여
경상감영에 환송되시다.
- 포덕 5년(1864) 1월 6일 대구 감영에 갇히시어
- 20일부터 혹독한 신문(訊問)을 받으시다.
- 3월 10일 좌도난정률의 누명을 쓰고
대구 관덕당에서 참형을 받아 순도하시다. (41세)

위령문

한울님과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오늘 3월 10일은 대신사께서 순도하신지 15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하여 순도순국하신 스승님과 선열들을 추모하는 합동위령식을 봉행하오니 성령이시여 감응하옵소서.

대신사께서 후천의 새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 무극대도를 창명하신 후 선열들께서는 수도와 포덕에 전념하시면서 온갖 고초를 감수하며 이 땅에 무극대도를 펴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운이 여의치 못하여 거룩한 뜻을 세상에 펴지 못한 채 참형, 교형, 전사, 옥사, 익사, 장사, 총살 등 참혹하게 순도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만 한 몸과 한 집을 위하여 살다가 안방에서 편안하게 죽어도 슬퍼하는 것이 인간의 상정이거늘 선열들께서는 우리의 무극대도가 인간의 행복과 나라와 세상을 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시어 도탄 중에 헤매는 창생을 구원하려다가 소중한 생명을 바치셨으니 그 숭고한 뜻과 불멸의 공덕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바야흐로 ‘산하대운이 진귀차도’하는 시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

한 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한울을 공경하지 않고 한울의 이치를 순하게 따르지 않는 각자위심으로 살아간다면, 사회는 사회대로 질서가 문란해지고 혼란과 병폐의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요, 따라서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어 생명체들이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시천주의 참진리를 갈구하며 인내천 정신을 밝히는 햇불이 점차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열들의 순도가 헛되지 아니한 덕화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울님께서 사람을 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한 자로서 만기만상의 이치를 모두 한 몸에 갖추어 화생시켜 육신을 마련한 것은 바로 스승님의 뜻이 세상에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열들의 성령이 우리 후생들의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 불굴의 정신을 받들어 후천의 새 세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수도와 포덕에 힘쓰면서 대도의 목적인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건설의 대원을 달성할 것을 선열들의 영전에 맹세하오니, 성령이시여 굽어 살피시옵고 명우(冥祐)가 있어지이다.

포덕 157년 3월 10일

천도교중앙총부



추 념 사

한울님 감응하옵소서!

오늘은 수운대신사께서 순도하신 지 제152주년이 되는 순도기념일입니다. 대신사님과 해월신사, 의암성사, 춘암상사님을 비롯하여 창도 이래 포덕천하하고 광제창생의 대도를 체행천도하시다가 순도순국하신 선열 동덕 모두 저희들의 심령 속에 출세하시어 무궁장생하시면서 후천 개혁의 길을 소소히 밝혀 주시옵기를 심고합니다.

선천의 명이 그 운을 다하고 후천 운이 채 밝아오기 전에, 수운대신사께서는 한울님의 명교를 받들어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한 온 세상에 가득 찬 악질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건질 무극대도를 창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고금천지의 운수와 인심풍속의 유형을 깨닫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은 대신사님을 좌도난정으로 모함하여 참형에 처했습니다.

그날 이후 해월신사께서는 대신사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한울님의 세상에 덕을 퍼기 위하여 신명을 다하였습니다. 해월신사 시대 36년 동안 신미년(1871) 교조신원운동, 임진년(1892)과 계사년(1893)의 교조신원운동, 그리고 갑오년(1894) 동학농민혁명의 과정에서 또다시 수십만 순도 선열이 후천개혁의 제단에 신명을 바쳤습니다.

의암성사와 춘암상사님 시대에도 갑진개화운동과 3·1 운동 등에서 수십만 선열 동덕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개벽의 대장정에서 순도하시고, 수백만의 천도교인들이 만세운동과 자주자강의 독립운동, 문화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단 이후에는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의 흐름으로 동학의 기운은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창도 이래 수백만 선열 동덕들이 순도하였음에도, 오늘 우리는 보국안민과 광제창생의 대의를 앞세우는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를 위하여 명을 바꾸신 순도의 역사는 눈앞의 대의보다 깊고 높고 넓은 경지에서 후천 운수가 갈아듭과 우리가 이신환성하고 성령출세하여 덕업장생하는 이치를 가르쳐준다고 믿습니다.

수운 대신사님의 성령이시여, 감응하옵소서.

스승님과 선열들께서는 육신의 죽음으로써 후천 개벽의 운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의 정기를 살리고, 정의와 평등평화의 새 시대의 길을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악질이 가득한 세상에서 아국운수를 먼저하고 그로부터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각자위심은 날마다 치성하고 동귀일체는 날로 어지러워졌습니다.

무극대도는 이민족 침략의 총구 앞에서 상처받고 침탈당하였으며, 분단의 상처 속에서 제 빛을 발휘하지 못한 채 역사의 고비를 지나 왔습니다. 인심은 금수의 무리와 가까워지고, 정의와 도덕은 지난 시대의 유물처럼 천대받는, 불순천리 불고천명의 세태가 천심을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생

명은 생기를 잃고, 도의 기운은 잠잠해졌습니다.

분단 70년을 넘어선 오늘날까지 통일의 길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고, 화해의 광장은 펼쳐졌다가 사라지기를 거듭합니다. 더욱이 지금의 한반도 위에는 핵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무력 충돌의 어두운 기운이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암울한 현실에서도 오직 천도교인들은 우리도의 운수로 말미암아 봄이 옴을 믿습니다.

보국안민의 계책이 간절해짐에 “삼칠 자를 그려내니 세간 악마 다 도망한다”고 하신 뜻이 더욱 새롭습니다. 용천검 날랜 칼로 막힌 언로를 뚫어 참에 돌아가게 하며, 만국병마가 일으키는 어지러운 먼지들을 한울복소리로 소제할 것입니다. 기울어진 자리를 바르게 하며 흐린 강물을 맑게 하여 돌아오는 새봄의 운을 밝고 따뜻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수운대신사 순도 추모식 및 순도선열 합동 위령식을 올리면서 다시금 수운대신사께서 해월신사에게 고비원주(高飛遠走)의 가르침을 내린 뜻을 깊이 되새깁니다. 높이 날듯이 도의 뜻을 보존하고 고양하며 먼 곳에까지 나아가 도의 기운을 펴고 행하라 하신 것은 그 도 안에서 스승님께서서는 장생하고 출세하시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스승님과 선열들의 성령이시여 감응하옵소서!

어둠이 짙어지고 아득할수록 동녘에 떠오르는 해를 간절히 바라듯이 동학 천도의 길에서 새 희망을 찾는 발길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죽임의 시대에 살림의 도인 동학을 찾는 것은 인지상정이요 자연한 이치입니다. 치성

한 것은 반드시 쇠하게 되고, 쇠함이 지극하면 반드시 성세가 돌아오듯이, 천도교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 분명한 천덕사은입니다.

노래하기를 “용담의 물이 흘러 네 바다의 근원이요, 구미산에 봄이 오니 온 세상이 꽃이로다.” 하셨습니다. 스승님의 마음이 있어 물이 흐르고, 스승님의 가르침이 있어 구미산의 봄이 오만년 토록 무궁할 줄을 알겠습니다. 오늘의 추모식과 위령식은 마른기둥 같은 겨울나무에서 새 생명의 봄을 예감하고 예비하는 혜안과 용기를 기르는 기틀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한울님을 찾는 까닭은 근본을 회고하고 참에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때를 만나 성운이 돌아오고, 우리 교단이 성세를 타고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것은 자연한 이치요, 선열들의 은덕의 결실입니다. 한울님의 은덕으로 천도에 입문한 우리는 일용행사에 경천명 순천리하며 이때를 맞이합니다.

해월신사께서 “우리 도는 삼절운에 창립하였으므로 나라와 백성이 다 이 삼절운을 면치 못하리라. 우리 도는 우리나라에서 나서 장차 우리나라 운수를 좋게 할 것이라.” 하신 것도 그러한 이치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스승님과 선열들의 순도하신 삼절운을 넘어서서 아국운수를 밝게 하고 그 덕을 넓혀서 온 세상의 개벽을 맞이할 것입니다.

한울님,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올해 우리는 중앙총부와 전국 교구의 교역자의 면모를 일신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름과 얼굴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이 새로

운 것이요, 사람이 바뀐다 하여 사사상수의 범통이 어기는 것은 아니니 쉬지 않는 한울의 도를 따라 정성을 다하고, 한울과 사람과 물건을 공경하며, 한울님의 감응으로 만사여의할 것을 믿어 나갈 것입니다.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의 제정과 기념사업,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운동과 시천주복지재단 사업은 무극대도의 내일을 기약하는 제2현도운동의 기틀입니다. 오늘의 천도교가 후천개벽의 새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마당포덕의 장으로 돌아오는 비단길이 되도록 뜻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남쪽별이 둥글게 차고 북쪽 하수가 돌아오면 대도가 한울같이 겹회를 벗으리라” 하셨으니, 지금 우리 사이에서 타오르는 원망과 증오의 불길을 심화기화로 다스리고, 스승님께서 순도하심으로 무극대도를 살리고 후천운수를 보존하신 그 뜻과 역사를 이어서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제창생의 길로만 나아갈 것을 다시 한 번 심고합니다.

한울님,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순도 순국선열들의 성령이시여 감응하옵소서!

포덕 157(2016)년 3월 10일

교령 박 남 수 心告

性靈出世說(성령출세설)

의암성사 법설

1. 宇宙元來靈之表顯者也

우주는 원래 영의 표현인 것이니라.

2. 靈之積極的表顯 是有形也 靈之消極的攝理是無形也 故無形有形也
即靈之現勢力 潛勢力之兩轉輪也

영의 적극적 표현은 이것이 형상있는 것이요, 영의 소극적 섭리는 이것이 형상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형상이 없고 형상이 있는 것은 곧 영의 나타난 세력과 잠겨 있는 세력의 두 바퀴가 도는 것 같으니라.

3. 茲有一物從之而忽有靈性之活動 是以靈之結晶 生物之組織也 以物之組織 又生靈之表顯也

여기에 한 물건이 있어 문득 영성의 활동이 시작되었나니, 이것은 영의 결정으로써 만물의 조직을 낳은 것이요, 만물의 조직으로써 다시 영의 표현이 생긴 것이니라.

4. 故 靈與世不過同一理之兩側面而已

그러므로 영과 세상은 같은 이치의 두 측면일 따름이니라.

5. 大神師 嘗 呪文之意解釋曰 「侍者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 是 指稱以靈之有機的表顯 道破人乃天之定義也

대신사 일찌기 주문의 뜻을 풀어 말씀하시기를 「모신것이란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라」 하셨으니, 이는 영의 유기적표현을 가리킵시오, 사람이 곧 한울인 정의를 도파한 것이니라.

6. 故性靈根本出世的矣 靈移而別無物 物移而別無靈 更無世 究竟 靈而需世 世而得靈 物物各遂其性 是神妙之性靈活動 應於萬機萬相 與器數應於出世調攝 譬如同一雨露 桃結桃實杏結杏子 是從千差萬別之植物 結千差萬別之果實

그러므로 성령은 근본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니라. 영을 떠나 별로 물건이 없고 물건을 떠나 별로 영이 없고 다시 세상이 없으니, 마침내 영은 세상을 마련하고 세상은 영을 얻은 것이니라. 물건마다 각각 그 성품을 이룬 것은 이 신묘한 성령의 활동이 만기만상에 응한 것이요, 기국대로 세상이나 조섭하는데 응함이니, 비유하면 같은 비와 이슬에 복숭아는 복숭아 열매를 맺고, 살구는 살구 열매를 맺나니, 이것은 천차만별의 식물에 좇아 천차만별의 열매를 맺음과 같으니라.

7. 同一性靈 無量大德之妙法 順化大天大地之各個差別 鳶飛於天 魚躍於淵

같은 성령에 헤아릴 수 없는 큰 덕의 묘한 법에 대천 대지의 각개차별을 순히 화하여, 하늘에 솔개가 날고 못에 고기가 뛰는 것이니라.

8. 然而人是萬物中 最靈者萬機萬相之理 總俱體者也 人之性靈 是大宇宙靈性純然稟賦同時 萬古億兆之靈性 以唯一系統 爲此世之社會的精神也

그러나 사람은 이에 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한 자로 만기만상의 이치를 모두 한몸에 갖추었으니, 사람의 성령은 이 대우주의 영성을 순연히 타고 난 것임과 동시에 만고억조의 영성은 오직 하나의 계통으로서 이 세상의 사회적 정신이 된 것이니라.

9. 神師 受人乃天之心法 定向我設位之祭法 是表明宇宙之精神 即億兆之精神也 共更明定億兆之精神 即我一個體之精神也

신사께서 사람이 곧 한울인 심법을 받으시고 향아설위의 제법을 정하시니 이것은 우주의 정신이 곧 억조의 정신인 것을 표명하심과 아울러, 다시 억조의 정신이 곧 내 한 개체의 정신인 것을 밝게 정하신 것이니라.

10. 此以一層狹義而言之 前代億兆之精靈 爲後代億兆之精靈之點 祖先之精靈 與子孫之精靈 融合表顯 先師之精靈 與後學之精靈融合 永遠出世的活動有之也

이를 한층 뜻을 좁히어 말하면 전대 억조의 정령은 후대 억조의 정령이 된다는 점에서, 조상의 정령은 자손의 정령과 같이 융합하여 표현되고, 선사의 정령은 후학의 정령과 같이 융합하여 영원히 세상에 나타나서 활동함이 있는 것이니라.

11. 又 大人之德 與天地共活用靈性 故天與吾神師 但有有形無形之別 觀其靈性的契機則全爲同一範圍同一活動 同一表顯也 是天即人人即天之所由來 天地萬物共順應 時代億兆同進化故 其心法決非超人間的 全然合世間的出世間的

또 하물며 대인의 덕은 천지와 더불어 같이 성령이 활용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한울과 우리 신사는 다만 형상이 있고 형상이 없는 구별이 있을 뿐이요, 그 영성의 계기로 보면 전혀 같은 범위에서 같은 활동이 같이 표현되는 것이니, 이것은 한울이 곧 사람이요, 사람이 곧 한울인 관계이니라. 천지 만물은 한가지로 순응하여 시대억조와 같이 진화하므로, 그 심법은 결코 인간을 떠난 것이 아니요, 전부 세간과 합치된 것이요, 세간에 나타난 것이니라.

12. 余嘗 梁山修煉之時 豁然得 「昔時此地見 今日又看看」 之詩句 是大神師之昔時余之今日 性靈上同一心法立言

내가 일찌기 양산 통도사에서 수련할 때에 활연히 「옛적에 이곳을 보았더니 오늘 또 보는구나」 하는 시 한 구를 불렀으니, 이것은 대신사의 옛적과 나의 오늘이 성령상 같은 심법임을 말한 것이니라.

13. 大神師 既爲性靈出世矣 一切物物心心 皆不無此性靈之出世的表顯也 대신사는 이미 성령으로 출세하셨으니 일체의 물건마다 마음마다 다 이 성령의 출세한 표현이 아님이 없는 것이니라.

14. 然而吾人 以此覺得 未覺得之所以 全關係性靈之修煉不修煉 若以

吾人各受大神師之心法而性靈修煉之結果 一朝豁然境到之則 茲覺大神師之心法 一切宇宙之心法而從以覺自己之性靈 即大神師之性靈 不生不滅 無漏無增 是大性靈之根本的出世也

그러나 우리 사람이 이를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바는 전혀 성령을 수련하고 수련치 않는 데 관계한 것이니, 만약 우리가 각각 대신사의 심법을 받아 성령수련한 결과가 하루 아침에 환한 경지에 이르면, 이에 대신사의 심법이 일체 우주의 심법임을 깨닫고 따라서 자기의 성령이 곧 대신사의 성령임을 깨달을 것이니, 불생불멸하고 무루무증한 것은 이것이 큰 성령의 근본적 출세이니라.

제19장 대신사 환원기도가

1. 포 - 덕 - 오 년 갑 자 삼 월 십 일
 2. 형 장에 문 은 피 갑 만 인 을 놀 십 때
 3. 해 월신 사 불 러 부 탁 하 시 - 니
 4. 한 그릇 청 수 로 영 결 하 시 - 니

1. 대 신 사 더 운 피 뿌 리 시 - 다
 2. 대 신 사 절 명 이 스 물 두 - 번
 3. 순 하 신 그 효 유 간 절 하 시 - 다
 4. 곧 고 곧 은 그 맹 세 포 덕 광 - 제

1. 친 고 에 한 기 친 대 구 장 대 야
 2. 쌀 쌀 코 귀 먹 은 세 상 사 람 들
 3. 등 명 수 상 - 에 무 협 극 이 요
 4. 슬 프 다 환 구 름 채 색 무 지 개

1. 한 울님 과 신 인 을 몰 랐던 - 가
 2. 과 - 친 - 통 곡도 듣 지 못 한 가
 3. 주 - 사 - 고 도 - 형 들 유 여 - 라
 4. 너 왜 우 리 수 심 을 자 아내 는 고

후렴

거룩하옵신 수운대신사

높고높으신 후천천황씨

명을주시고 천도바꾸어

억조창생을 살리시네

제14장 위령송

1. 장 평 갱 졸 많 은 사 람
2. 함 지 사 지 출 생 들 아

1. 한 을 님 을 우 러 러 서
2. 보 국 안 민 어 찌 할 꼬

1. 조 화 중 에 생 겠 으 니
2. 대 저 인 간 초 목 군 생

1. 은 덕 - 은 고 사 하 고
2. 사 생 재 천 아 닌 런 가

1. 근 본 조 차 잇 을 소 냐
2. 불 시 풍 우 원 망 해 도

1. 불 망 기 본 하 었 어 라
2. 임 사 호 천 아 닌 런 가

후렴

효 박 - 한 이 세 상 에

불 고 천 명 하 단 말 가

가 련 - 한 세 상 사 람

경 천 순 천 하 었 어 라

